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권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rb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FAX: (031)470-3116



중생구제도 착이 아닌지

문 어떤 것에든 착을 갖지 말라 하겠는데 착이 없이 어떻게 불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도를 이루는 것도 착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과 많은 스님들이 득도를 하였는데, 득도를 하신 분들은 공한 것인데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착이 아닌지요? 그리고 득도를 해도 다시 윤회의 세상에 빠져들 수 있는지요. 절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마음 공부를 실천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스님의 대자대비하신 도량으로 미혹한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답 길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건져야지 하고 내가 한다는 생각이 붙는 것하고 내가 라는 것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본래 아무 붙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 다 맡겨놓고 하는 사람의 일은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생각으로 지어서 그렇게 거주장스럽게 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밥 많은 지네나 돈 벌레 같은 것을 보면 아주 다리가 많죠. 그런데 그것이 걸리지 않고 아주 잘 가다가도 '너는 다리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 않고 잘 가나?' 그러니까

인연에 휘말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뿐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은 잘 가다가도 괜히 그렇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다' 유리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유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주인공 죽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고 믿고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하는 거,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또 회사에 나가서 직원을 부리는 직원으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있으니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모두 나한테 비비는 거고 부딪치는 건데, 아니, 내가 나한테 '어, 모든 것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나한테서 해결해야지. 주처에서 다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주인공, 당신밖에 없다.' 그러든지, '한마음, 너밖에 없다.' 이러든지 그래도 좋아요. 또 '영원한 친구, 너밖에 없어!' 이래도 좋고 '아버지' 해도 좋아요. 그것은 이름일 뿐이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맡기고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실형을 좀 해 보시고 말을 하세요.

오늘부터 그렇게만 진실하게 해나가신다면 생활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우환이 없어지고, 병고 없어지고, 병이 나더라도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세음미 되는 거고요. 그러니 그것은 벌써 참나 참나에 바뀌는, 활음이 아니라 중음으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살기 좋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즐겁게 삶을 사는데 왜 즐겁게 살수가 없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계신 거예요. 차원이 올라서 모든 게 내 아님이 없는 도리를 아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뜨지 못해서, 의식만 있고 보지 못하거나 차원이 낮은 데로 떨어지느냐 하는, 여러분이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내려간다고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한 군데다, 이거 맺들도 중심을 따라 끼워 놓고선 모든 물건을 놓고 돌려야 그 맺들이 이탈이 안되고 갈라 나오지, 아니, 심봉을 딱 꽂지 않고 맺들을 돌려 보세요, 그 맺들이 이탈되지, 그러니까 딱 중심을 세우고 '주인공, 너밖에 없어. 지금 내가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너밖에 해결할 수 없잖아.' 할 때, 그렇게 믿을 때 바로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실험하고 체험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착이 붙지 않는 진정한 자비를 출연히 깨우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연한 인연이 있나요

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연한 인연이란 게 있는 건지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천생연분이 있고, 지상연분이 있고, 전생연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상연분은 그냥 우연히 지상에서 만나는 인연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인연도 있나요.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우연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전생에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연이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답 여러분이 수 없는 억급 전으로부터 진화해서 나오면서 그래도 선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인연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손수건을 하나 들어도 인연입니다. 이 손수건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수건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주니까 바로 손수건이라는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도 같이 만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칠 나와서 만남인데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느냐 구덩이로 들어가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악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더불어 같이 내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놓으시고, 어떠한 역할함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다 맡겨 놓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서 말고, 말도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가 다 맡겨 놓으면, 자기가 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인연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내 팔자지'하고 체념을 하거나 꼬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이끌어주려고 하는 공부 재료구나 하고 마음을 돌려놓았을 때 그 인연과 업보가 그대로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되고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

다면 아마 조건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체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모를 겁니다.

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

문 저희 친정은 제사를 3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몸이 많이 아프셔서 지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율케가 기독교에 다니고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사를 지내야 하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제사 지내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춥히고 있고, 향이 있고, 떡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을 다 먹고도 남음이 있는 떡 하나가, 되 남은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세삼스럽게 갖다가 놓고 보일 건 뭐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평등하고 온 누리를 다 싸안을 수 있으리만큼 크다면, 그 조상의 영령들도 다 문을 열어 놔 주니까 거기에 들어서, 돌이 아닌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온 세상이 내 자리이고, 온 세상 것이 내 것인데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뭘 차립니까. 그러면 내가 익었다면 그렇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너무 살기에 바쁜 요즘 세상에서 열 몇 번씩 지내다 보면, 자식대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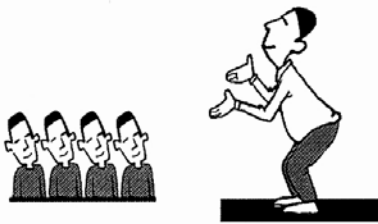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거의 매달 지내야 하는 형편이어서 율케에게 억지로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고 참 난처합니다. 스님, 조상님께 누가 되지 않으면서 자신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가르침 주시옵소서.

답 어떤 집에서는 일 년에 열 몇 번을 지내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는 말아들은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질 않고 많든지 적든지 일년에 세 번 씩이라도, 모든 조상들을 한데 합쳐서 세 번씩이라도 지내드리고 백중 때나 정월 명절에는 그대로 또 지내드리면 누가 되지 않습니다. 참쌀떡으로 세 동치만 동정성을 틀어놓고, 과일 세 가지 나물 세 가지, 그리고 향, 초 켜놓고 청수 한 그릇을 놓는다면 아주 만점이라고 봅니다.

아주 깨달은 분들은 그것도 저것도 없어도 되겠죠. 그런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그렇다 쳐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손들한테도 고통을 주는 거고 또 지낼지 안 지낼지도 모르는 일이니 제사가 많은 집들은 일 년에 세 번으로 아주 매기단을 해놓고, 참쌀로 조그마하게 떡 세 개 놓고, 초 넉넉히 큰 걸로 하고 넉넉히 하지 못하면 그저 한 조각이라도 하되, 한 조각을 셋으로 나누어서 놓으면 또 되고, 그러니까 과일 세 가지, 나물 세 가지를 한데 합쳐서 놓으시고 나중에 또 그걸 식구가 집속하게 하면 되죠. 떡도 냉장고에 넣어

어 뒀다 남편이나 자식들이 좀 헛헛할 때는 그걸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이고, 왜냐하면 지금의 후손들이 바로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먹여주는 거는 대신 후손들이 먹어주고 정성을 틀어주는 까닭에 후손이 대신 먹는 거거든요. 그 정성의 마음은 바로 조상들이 다 한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니 마음의 인등을 켜세요. 날마다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만 인생이란 게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스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 본래는 온 곳이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본래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있고, 이 사바 세계의 모든 근본은 인간 마음 속에 가설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생명의 근원을 말해본다면 지수화풍, 즉 말하자면 바람과 흙과 결국은 물과 한데 혼합이 되니까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생명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많은 생명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인간은 맨 나중에 출현했으니 결국은 수억 겁 광년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되어서 인간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인간이 되어서도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의, 즉 말하자면 전생과 전심(心), 전신(身)이 세 가지가 한데 혼합이 돼서 또 현실에 질문하신 분이구나 나나 모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지나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지금 현재에도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조건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도, 그러니 우리가 모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하나도 고정된 게 없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50%의 물질 세계에서만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은 벗어날 수 없는 도리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 세계의 50%를 맞춰서 100%를 만들려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육식(肉欲)을 통하여 생긴 의식들은 우리 인체에 간단히 쳐도 16억이라는 숫자 아닌 숫자가 나오니까,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또 의식이 있고, 또 의식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건 숫자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내 한마음 하면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는 우주와 이 사바세계와 나의 내면세계의 의식들이 전부 한마음으로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내 한마음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배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선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나라를 조건을 세우지 않고, 주인공에다 일체를 맡겨 놓는다면 삼계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참선입니다. 주인공에다 진정으로 맡겨 놓고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수박 씨 얘기를 많이 했죠. 수박 씨는 내 안에 수박 씨가 있다고 믿고, 거기가 다 맡겨 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맡겨 놓고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그렇게 하면서 온갖 생활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좌선이다 이거죠. 앞뒤 없는 대피리처럼 안이나 바깥이나 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참나 참나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갈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까, 앞에서나 뒤에서나, 안에서나 바깥에

서나 머무르지 말라, 걸리지 말라, 이 소립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 참 좌선이다 이겁니다. 번뇌 망상을 피하지 말고 나온 자리에 다시 놓아서 녹이라고 했습니다. 용광로에 넣듯이 일체를 넣고 놓는다면 바로 그것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으로 알리고 하는 그 마음도 그 자리에서 나왔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일어나는 생각이나 알음 알음도 다 정교 주안자리에서 알려주게끔 다시 되돌려 놓는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절을 시키는 이유는

문 부처님은 절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절에 다니다 보면 절을 많이 하면 좋다고 하면서 삼천 배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삼 배만 하는 거와 삼천 배를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득 어느 불자께서 부처님께 열심히, 정성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답 우주가 지금 돌아가는데 일본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염주 돌리는 것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생각을 하느라고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니깐, 그 생각을 녹이라고, 번뇌를 없애라고 모두 백팔

일체 믿고 놓으면 바로 그것이 열반 들어가는 지름길

배를 하니 염주를 돌리느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천배'라고 할 때 '삼천'하고 한번 불러 보세요. 삼천도 하나죠? '하나' 하면 하나죠? '둘' 하면 하나가 없어요. '셋' 하면 둘이 없어요. 그거야. 그러니까 삼천 배가 일 배요, 일 배가 삼천 배요, 만 배가 천 배요, 천 배가 바로 일 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삼천 배를 시키는 것도 일리가 있죠. 모두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삼천 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든 잘 되려고만 하니깐, 그러니 힘들게 삼천 배하고 그 대가를 받아가려는 소립니다.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삼 배밖에 못 했는데, 백팔 배밖에 못 했는데 하고 야단 들을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 돈을 못 벌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어 돈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글썄, 절을 일 배도 안 해도 허공에 딱 찬 그 자체가 바로 동굴러서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절하는 것도 모두 자기 아님이 없는데 어디다 대상을 두고 절을 합니까, 예? 그렇게 돌아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절을 많이 해야만 좋더라, 절을 많이 해야만 복이 온다더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하더라도, 일 배를 하든 삼배를 하든 마음을, 가정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조상이든 전부 한데 동굴러 놓고 일 배를 올리더라도 지극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절을 못하게 되면 아주 지극하게 마음으로도, 지극한 마음으로 일 배를 올리시란 말입니다. 바깥 때는

18면으로 계속

가짜본 원위를 밟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S11 288쪽
값 6,000원
에시아루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가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rbaum.org)로 연락 바랍니다.